

잔인한 공격본능은 생존 위한 재능이었다

공격성, 인간의 재능

앤소니 스톨 지음·이유진 옮김



흔히 '공격성'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투영돼 있다.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살인, 폭력, 학대 등의 행위다. 일상생활에서 '공격성'은 금기와 제한

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도 단지 "극도로 '아반적인' 행동은 인간에게 국한된 특징"이라고 인정한다.

저자는 공격성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취한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짙병을 달라고 까무러칠 듯 우는 아기, 강제수용소의 수용자를 고문하는 교도관, 승리를 위해 투지를 불사르는 운동선수들처럼 공격성은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모두를 개탄하게 하는' 폭력적 공격성 외에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격성도 있다. 정신분석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좌절에 따른 반응'을 넘어 인간본성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어린 아이가 저항하는 행동은 공격적이지만 반면 독립성을 향한 충동으로 본다. 또한 권력을 향한 욕망이 처참한 결과를 낳지만 한편으로 외부 세계를 정복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달리 말하면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열망, 주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공격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얘기다.

책이 다루는 부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격성이 정신병리학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행태로 발현되는지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우울증, 조현병, 편집증의 공격성까지 다루며 각 증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분석은 인간의 폭력성과 잔혹함을 묘사하고 옹호하는 것을 제지한다. 공격성의 긍정적 역할을 더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보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온, 또는 잘못



축구에서 손흥민의 '공격성'은 오늘날 그를 세계적인 선수로 이끈 요인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알고 있던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누구에게나 있는 내면의 공격성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저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의도가 아닐까. 〈심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과연 '공격성'은 부정적인 의미만 포함돼 있을까.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인 앤서니 스톨은 "인간이 공격성이라는 중요한 재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결코 지금처럼 세상을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의 '종'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책 '공격성, 인간의 재능'은 인간의 공격성 가운데 긍정적 측면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들여다본 문제작이다.

"인간 본성에서 공격적인 부분은 천적에 맞서는 방어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적인 업적의 토대가 되고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지어 한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사이에서 고개를 꿰뚫어 세우고 다니도록 해주는 적절한 자존심의 근간이 된다."

물론 책은 부정적인 측면의 공격성까지 두둔하지는 않는다. 희대의 살인자나 혐오스러운 잔혹 범죄에 대해 '아반적'이라

음악의 거장 말러,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야기 '풍성'

구스타프 말러 1·2

앤소니 스톨 지음·이정하 옮김



이야기들이 그의 작품을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피는 것도 흥미롭다.

미완성으로 남은 '10번 교향곡' 등 10개의 교향곡과 '대지의 노래' 등 걸출한 음악을 만든 작곡가이자, 유명 오케스트라를 섭렵하며 최고의 지휘자로 명성을 쌓았던 말러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 나왔다.

민첸대학교 극장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앤소니 스톨 지은 '구스타프 말러 1·2-위대한 세기말의 거장'은 말러의 서신, 아내 알마의 회상록, 주변 사람들의

회고록 등 수많은 사료를 토대로 말러의 삶과 문학 편력, 사상, 지휘자로서의 성과, 결혼생활, 인간 관계, 병력과 죽음 등을 촘촘히 정리한 글이다. 1권 956쪽, 2권 107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저작은 사람들이 왜 말러의 음악에 열광하는 지, 말러의 삶과 음악은 어땠는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에드워드 호퍼, 이브 생 로랑, 굴레 굴드 등을 패낸 유행문화사의 '현대 예술의 거장' 시리즈로 출간된 이번 책의 번역은 특히 음악 전문가 이정하가 맡아 눈길을 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과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동아일보 신춘문예 음악 부문에 당선된 후 평론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씨는 아도르노의 '말러의 음

악적 인성학'도 번역했다. '구스타프 말러-현대 음악의 경계를 넘어간 작곡가'라는 이름으로 2012년 나왔던 책의 개정판이다.

원서의 부제는 '진속하지만 낯선 자'다. 저자가 그려낸 말러는 병약하고 섬세하기만 한 세기말적인 지식인의 전형도 아니고, 세상물정 모른 채 예술에만 투신했던 외골수도 아니었다. 수영과 등산으로 다져진 건강한 체격과 강인한 체력을 지녔고 음악계의 권력계급과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적인 인물의 모습도 보인다. 저자는 특히 말러의 생애만을 좇는 게 아니라 당시의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정치·사회·문화·과학·예술적 지형도를 함께 소개하며 말러의 삶이 주는 의미를 통찰력있는 시선으로 짚어낸다. 50페이지에 이르는 꼼꼼한 연보도 눈에 띈다.

〈유행문화사·각권 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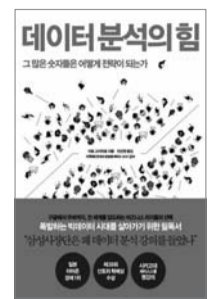
▲데이터 분석의 힘=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데이터 분석 입문서다. 지난해 일본에서 출간돼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경제학자 이토 고이치로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데이터 분석 이론들을 쉽게 설명했다. 오바마 대선 캠프는 어떤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60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더' 모았는지, 정부가 전기요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절전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데이터 분석의 세계를 경험케 한다.

〈인플루엔셜·1만4800원〉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철학 수업=역사의 격변기였던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며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던 16명의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엮는다. 이 한 권으로 복잡한 철학을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때 마다 배가 아프다면 프로이트가 이유에 대한 답을 알려줄 것이다. 또 니체의 초인은 당신의 새로운 이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생각의길·1만5000원〉

▲굿슬립 굿라이프=잘 자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 책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수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기로부터 차근차근 짊어준다. '성공하고 싶다면 침대 속으로 들어가라'는 부제처럼 저자 서진원 은 좋은 잠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북산·1만4000원〉

▲하유가=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를 고발한 다큐 소설이다. 초대남 모집이라는 이름의 집단강간과 지인남, 여성 신체의 비하와 조롱, 신상탈기 등 여성의 몸을 재료로 삼아 광란의 카니발을 벌이던 소라넷을 여성의 시선으로 중계한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그 지옥에 내던져진 여성들이 모든 것을 걸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싸움의 과정과, 익명의 개인 여성들의 저항으로 끝내 소라넷을 폐쇄시키기까지의 과정을 한편의 영화와 같은 속도감으로 재현해낸다.

〈이프북스·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세상에 도전한 위대한 여성들=여성의 화석을 최초로 발견한 고생물학자 메리 애닝과 가난을 극복하고 318주 동안이나 테니스 세계 1위를 지킨 세리나 윌리엄스 등 여성으로서 마주해야 하는 여러 편견들을 뛰어넘고 자신만의 꿈을 이룬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 속 여성들의 삶에 등장한 불평등한 사회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고 세상이 오늘날처럼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사공주니어·2만1000원〉

▲엄마에게서 우유가 나와요=작고 푸름한 동생이 엄마 가슴을 뽐내며 태동하는 깜짝 놀란다. 공장에서 나오는 줄 알았던 우유가 엄마 가슴에서 우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엄마는 태동에게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자 장난꾸러기 태동이는 엉뚱한 상상을 한다. "뭇생겼던 태동도 우유를 먹고 잘생겼었는데 동생도 우유를 많

이 먹으면 잘생겨지는 걸까요?" 출산과 수유 과정을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과 연결 지어 재밌게 그렸다.

〈씨드북·1만2000원〉

▲용기 로봇의 비밀=산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돕는 아빠가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산이는 아빠가 용기 로봇의 힘에 기댄 것을 알고 실망해 아빠를 피해 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놀이공원에 간 산이가 위험에 빠지자 로봇의 도움 없이 자신을 구해내는 아빠를 보고 비로소 그의 진짜 모습과 마주한다. 이 책은 자신이 가족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 용기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한다.

〈노란돼지·1만3000원〉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회산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